

월요 CEO의 희망편지



대인관계시 3V(Visual / Voice / Vocabulary)란?

리더는 직원들의 인생과 성공에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리더는 간부사원들을 칭하죠.

리더는 좋은 일에 애써야 합니다. 선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외모부터 삶까지 하나의 표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회사 내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저도 부쩍 염색을 자주 합니다, 좀 젊게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V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외모(Visual), 목소리(Voice), 단어(Vocabulary)죠.

깔끔한 용모가 중요합니다. 바로 리더의 스타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대외 활동부서는 외모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명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꺼내기도 전에 ‘아, 이 회사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깔끔한 외모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워낙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 의외로 나이를
먹으면서 목소리가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맑고 힘찬 목소리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하고 일주일이면 수차례의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첫 번째 미디어인 목소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큼 단어도 중요합니다. 단어는 뽑는 것보다 상황에 적절한 키워드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고르려면 머릿속에 있는 사전이 커야 합니다.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문장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명문을 발견하면 수첩이나 에버노트에 메모하여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메모한 것을 들여다보면 눈에 익어 외워지더군요.

말이 곧 내 지적 수준을 보여주고 조직의 인격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문서야 나중에 수정할 수 있지만 이미 뽑은 말은 그야말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할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일목요연하게 핵심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발표력이 곧 실력이 되곤 합니다.

지난달 경영전략대회시 팀장들이 팀 목표에 대해 임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을 때 쉽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3V를 유감없이 펼친 분도 계셨고 많은 청중 앞에서 당황하거나 미흡한 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다음번 경영전략 시에는

한층 더 진일보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CEO로서 저는 발표해야 하는 자리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전에 연습하기는 하지만 만족스럽게 마무리 못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준비와 연습만이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V를 엄두에 두고 발표 연습을 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향상된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